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이 창립된지 어언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꾸준히 의학한림원은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회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과정을 요약하여 설명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한림원 설립 10주년을 즈음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한림원(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이나 공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NAEK)과 같이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역대 회장단회의, 임원회의, 집행이사회에서 진지하게 의논 되었습니다.

2014년 4월30일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과거, 현재, 미래 ”라는 주제로 개최된 창립 10주년기념 포럼에서 대한민국의료계의 최고석학 단체인 의학한림원이 그 권위를 인정받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며,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또, 2014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 과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역할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를 시행하여 의학한림원의 역할을 정립하였고 동시에 미국의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 NAS)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10월30일 미국의학한림원의 직전회장인 H. Fineberg교수를 초청하여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조찬 의료정책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의료계 인사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

였습니다. 동일 오후에 국회에 있었던 포럼에서는 “미국의 환자중심, 근거기반의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H. Fineberg교수의 의미 있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같이 미국의학한림원 운영 목표, 방식, 위상과 그 역할에 대한 H. Fineberg교수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의료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학한림원의 위상정립과 역할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의료계, 의학계, 정부 및 정치계 인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3-4일 경기도 양평에서 의학한림원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임원 워크숍에서 의학한림원의 법정단체화에 대비한 의학한림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와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법안은 2014년 9월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김진진 보건복지위원장 및 9명 의원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타당성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들(법인격의 문제와 회원 범위 확대문제)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의학한림원은 개선된 의견을 다시 제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의학한림원의 법적근거는 개정된 의료법에 명시되었으며 2015년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하였으며,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

습니다.

지난 2년간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임원들, 역대회장들, 집행이사들, 각 위원회 위원장들, 특히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헌신적으로 노력에 의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만들기 위해 입법화를 추진해 주신 문정림 의원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뒤에서 도와주신 많은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말없이 뒤에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의학한림원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그리고 과학기술한림원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학한림원은 행정적·재정적 인프라가 강화되어 학술적 리더로서 정

책자문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과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독립성을 갖추고 보건의로 정책 결정에 중립적이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의학한림원으로의 발돋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의 노력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는 획득하였으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진정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리고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튼튼한 조직을 만들고 업무를 설정하는 한 편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과정은 이제부터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진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 5대 회원인사위원회를 마감하면서...



이정웅
회원인사위원회 간사

2004년 167명의 창립정 회원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20-30명의 임기정회원을 선출해온 바 있으며 2015년 현재 종신정회원 86명, 임기정회원 3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에도 2016년 임기정회원 후보에 85명이 지원하였고 2차에 걸친 회원인사위원회 심의와 분회총회에서의 심사과정을 통해 40명을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이는 2016년 1월 28일 평의회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임기정회원으로 선발될 것이다.

회원선출 심사항목은 1)전문 학술지 게재 논문(SCI 등재 또는 비등재)의 책임 또는 공동저자 여부, 영향력지표, 인용횟수, 2) 전문 학술저서, 역서, 편저, 3) 학술지

편집활동 (현재 활동 경력도 포함) 등이며, 한림원 정관/규정에 심사항목 별 배점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후보자는 심사자료 양식에 의해 본인 평생의 연구업적에 관한 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의학한림원 회원인사위원회에서는 지난해까지 회원후보자들이 제출한 심사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 졌으나 금년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한번쯤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가 방대하여 전체를 검증하기는 불가능하여 85명 지원자의 SCI 등재 논문 중 주저자 논문부분만을 PubMed 검색을 시행해 보았다. 그 결과 공동저자 논문을 주저자 논문으로 기재하거나, 동일한 논문을 띄엄띄엄 여러 번 반복해서 신청하거나, 아예 PubMed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논문, 전문

가들 사이에 단순히 서로 의견을 나눈 brief communication을 주 논문으로 신청한 경우들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영향력 지표를 2014년이 아닌 그 이전 연도나 논문이 발표된 해의 영향력 지표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에서 공동저자를 주저자로 잘못 표기한 경우라도 한번 뿐이거나 영향력 지표를 잘못 표기한 지원자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대상에 포함하였으나 같은 오기를 2번 이상 반복해 있는 경우는 허위 기재로 판단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번 검증은 주저자 논문 부분만 검색 하였을 뿐인데도 여러 명의 허위 기재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주저자 논문보다 공동저자 논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검정 대상이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것과 검색조차 불가능한 학술저서나 국내 논문에는 더 많은 오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

사자료 제출 및 심의과정에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심사자료 제출시 증빙자료를 함께 받아야함은 물론이고 가칭 회원심사자료 검토위원회를 두어 철저한 검정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인의 평생의 연구업적에 대한 어마어마한 양의 양적인 심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과학한림원이나 미국 국립의학한림원 (National Academy of Medicine)처럼 5편 미만의 대표 논문에 대한 질적 평가로 후보자를 심사한다는 점도 참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숙원사업이었던 법정단체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회원 심사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3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제13회 화이자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기초의학부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철훈 교수(46세)가 임상의학부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이은봉 교수(50세)가 수상하였으며, 시상식은 11월 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되었다. 화이자의학상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상으로 한국 의학계의 비전제시와 의학분야 연구경쟁력을 높여 한국의학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의학상으로 상금은 각 3,000만원이다.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



김 철 훈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학 력
199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200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졸업 약리학 박사

- 경력
- 1995년 - 199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조교
 - 1998년 - 200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강사
 - 2000년 - 2003년 국군의학연구소 연구관
 - 2003년 - 2006년 미국 국립보건원 박사후 연구원
 - 2006년 - 201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조교수
 - 2010년 - 201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부교수
 - 2012년 - 2013년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 방문 교수

- 2009년 - 현재 Neuropharmacology 편집위원
- 2015년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

- 수상경력
- 2004년 Ruth L. Kirschstein National Research Service Award Fellowship
 - 2007년 AstraZeneca Virtual Research Institute Program
 - 200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우수 연구 업적 교수상
 - 2010년 한국의학원 젊은기초의학자상
 - 201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우수 강의 교수상

수상소감

권위의 화이자 의학상을 부족한 저에게 허락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남궁성은 회장님, 심사위원장이신 최병인 교수님, 운영위원장이신 김병길 교수님, 또한 심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교수님들, 저의 Alma Mater를 이끌어 주시는 이병석 회장님, 그리고 후원해 주신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이자 의학상이 우리나라 순수 의학 발전에 지속적으로 큰 기여를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커피가 처음에는 입에 쓰지만 그 맛을 알게 되면 평생 뱉 수 없는 좋은 친구가 되듯이 연구가 제 평생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신 많은 고마운 은사님들이 계십니다.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안영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구의 처음 걸음마를 뿔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치밀한 연구 분석과 탐구하는 자세를 오래 곁에서 지켜보면서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김경환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큰 꿈을 꾸라고 격려 해주시고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항상 믿어 주시고 올라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자상한 은사님이십니다. 김동구 교수님은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연구를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평생을 연구해 오신 스트레스 분야와 행동실험 분야를 아낌없이 저한테 전수해 주셨고, 공동 연구로 이끌어 주셔서 이번 Nature Neuroscience에 논문을 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전통 있는 가족 같은 교실이 연구의 시너지를 내는 큰 원동력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됨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야 할 연구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이민구 주임 교수님, 저에게 연구의 장을 열어주시고 큰 지원군이 되어주신 SRC센터장이시자 전 회장님이신 윤주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약리학 교실의 박경수, 김주영, 김형범, 지현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가 꽃 필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시고 상호 토론과 학문적 자극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을 놓지 않게끔 해주는 원동력들이십니다.

선배 교수님들의 노고로 저희 세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연구의 출발점을 가질 수 있었고, 자라면서 우리의 의학 연구 수준이 세계 수준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벅찬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음 후배들은 이보다 더 앞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까지도 가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상은 업적이 창대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간 매개자에게 주시는 격려의 상으로 생각합니다. 가꾸어온 연구 자산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 더 나은 후

속 연구 세대를 길러내고, 국가 의학 연구 경쟁력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 소임을 잘 완수하라는 메시지로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향후 멀지 않은 세대에 화이자 의학상을 받은 수상자의 후학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연구자가 나오는 결실로 꽃피리라 기대합니다.

의사는 일차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를 집적 돌보는 것보다는 과학자적 소임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학자의 임무는 사물의 이치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증명 가능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견 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데는 부단한 훈련과 많은 주위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학교와 교실은 이러한 평생의 수련을 쌓아 나가는 제게 가장 좋은 텃밭이었고, 오늘 다 언급드릴 수 없었던 많은 주위 분들이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 기초의학을 선택했을 때의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좁고 고립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지만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범위에서 교류할 수 있었고, 더 다양한 좋은 영향들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이러한 과학자로서의 소임을 사랑하고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교육시켜 주시고, 저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해주시며, 항상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이유로 항상 늦게 집에 들어오고, 집안 일이 일 순위가 아닌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행동해온 미성숙한 남편을 참고 잘 이해해 준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논문 요약 및 연구의 의의

아직까지 뇌과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미지의 분야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숙제인 신경과적 질환이나 정신과적 질환을 극복하는데 있어 뇌기능의 이해는 선결 조건입니다. 특히, 뇌는 외부 자극에 대한 우리 인체의 반응을 조절하는 최상위 조절 중추로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뇌가 처리해야 할 많은 외부 자극 형태 중 스트레스는 대다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

는 정신적 자극이자 현대인이 실생활에서 피해나가기 어려운 생활환경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처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신과적 질환 유발에서 스트레스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뇌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제어하여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겪은 다수의 사람들 중 왜 일부만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사람을 가리켜 스트레스를 잘 받을 것 같다거나 또는 잘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즉, 우리가 은연중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극복에 개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때론 이것이 개인의 성격차 때문이라고 막연히 설명되기도 합니다. 본 연구진의 가설은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의 개별 차이에는 분명한 분자생물학적 변화가 수반되며, 그 과정이 측정 가능한 뇌내 물질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전을 알아냄으로써 우울증,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및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생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쥐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극복에 개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 수년전에 과학계에 보고되어 생쥐를 이용한 스트레스 반응 차이 실험이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람 및 생쥐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내재적 극복 성향을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부르는데, 회복탄력성의 효과적인 발현 유무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개체 간 차이가 나타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 물질을 찾아내 증강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복탄력성 물질의 전모와 조절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본 연구진은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중 하나인 mGluR5가 회복탄력성을 조절할 수 있는 수용체라는 가설 하에 기본 및 보상 조절 중추인 nucleus accumbens라는 우리 뇌의 아주 작은 부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mGluR5가 유전적으로 제거된 생쥐와 일련의 행동 실험을 결합하여 mGluR5

활성화가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우울 행동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mGluR5가 뇌 여러 부위에 존재하지만, nucleus accumbens에 존재하는 mGluR5의 기능이 생쥐의 우울 행동을 억제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mGluR5가 nucleus accumbens에 존재하는 회복탄력성 물질인 deltaFosB라는 단백질의 유도에 중요한데, deltaFosB가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중간 과정을 mGluR5가 매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 회복탄력성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리학자로서 흥미로운 사실은 mGluR5가 수용체이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도 회복탄력성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동물을 통해 최초로 증명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이전 연구들에서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몇 개의 회복탄력성 물질들이 제안되었지만, 이들이 세포 안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선뜻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mGluR5는 약물이 쉽게 작용할 수 있는 세포 표면 수용체이기 때문에 회복탄력성 물질을 저분자 화합물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mGluR5는 회복탄력성 조절 기능을 가진 것으로 규명된 최초의 수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가 향후 의생명과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첫째로는 현재까지 우울증 약물 개발에서 mGluR5 길항제가 주를 이루어 왔는데, 사람 우울증을 더 잘 모사한 스트레스 모델을 사용한 본 연구는 오히려 mGluR5 효현제가 항우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약물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mGluR5 PET와 같은 사람 영상 이미징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생각되는 좋은 양육 환경, 교육, 따뜻한 인간관계, 긍정적 생각, 명상, 운동, 심리치료,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인문적/사회적 방법들의 효과를 수치화하여 회복탄력성 증강 방법들의 객관적 근거 및 구체적 적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물 뿐 아니라 회복탄력성을 증강시키는 다양한 예방적 접근을 가능케 할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



이 은 봉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학 력

199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계열 졸업 의학석사
 200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계열 졸업 의학박사

경 력

1991년 1월 - 1991년 6월 미국 Whitehead Institute, visiting scientist
 1992년 3월 - 1993년 2월 서울대학교 병원 인턴
 1993년 3월 - 1997년 2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전공의
 1997년 3월 - 1999년 2월 서울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임의
 1999년 3월 - 2000년 8월 서울대학교 병원 외래전담의
 2000년 9월 - 2004년 9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금조교수
 2004년 9월 - 2006년 2월 미국 Emory university, Postdoc
 2004년 10월 - 2010년 3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금부교수
 2010년 4월 -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
 2014년 1월 -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인 교수

수상경력

2007년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상
 2008년 우수강의상
 2014년 합춘내과 학술상
 2015년 합춘창의논문상

수상소감

무엇보다도 저에게 과분한 화이자 의학상 수상을 결정해 주신 의학 한림원 남궁성은 회장님, 최병인 심사위원장님,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수상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대희 학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의 기쁨에 앞서서, 그간 화이자 의학상을 수상해 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빛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저희 류마티스 내과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치율이 20% 이내에 머물고 있는 난치질환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2000년대부터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를 매일 매일 진료하는 임상 의사로서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환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희망이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화합물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화합물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

고, 이를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과정 또한 새로운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 영예를 안겨 준 토파시티닙은 그간 생물학적 제제에 머물러 있던 류마티스 관절염 약제의 범위를 신호전달 차단제로 한 단계 넓혀 줌으로써,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상시험이란 기초연구와 달리 많은 분들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수상은 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과제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수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시험 연구는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임상연구자와 새로운 의약품을 제공하는 제약회사 간의 긴밀한 협조와 참여를 통해서만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임상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연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연구기반 측면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임상시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방영주 의학연구 혁신센터장님과 서울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내에 임상시험 연구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송영욱 교수님의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본 임상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 임상실의 실제 진행을 위해서는 연구의 진행 실무를 담당한 이경희 연구 간호사를 비롯하여 임상시험 센터의 담당 약사 분들 및 간호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이 본 연구를 가능하게 했으며, 본 연구의 진행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국 화이자제약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 또한 연구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갈등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 주신 화이자의 Bethanie Wilkinson 박사님, 화이자의 Tamas Koncz 박사님, 본 연구의 전체 디자인과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신 스웨덴 Karolinska institute의 Ronald F van der Vollenhoven 박사님, 미국 Metropolex Clinical Research Center의 Roy Fleischmann 박사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에 수상하게 된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제를 국내 임상연구에 적용함으로써 얻은 성과입니다. 향후에는 국내 자체의 역량으로 개발된 신

약을 국내 임상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류마티스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새로운 약제가 하나 둘씩 개발되어 가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류마티스 분야에는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는 많은 희귀 난치병들이 존재합니다. 의학 연구자들과 제약회사가 보다 긴밀히 협조해서 이들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약제가 출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논문 요약 및 연구의 의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중년의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1%의 인구가 이환되어 있다. 임상적으로는 주로 말단 소관절을 침범하는 만성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며 초기에는 몇 개 관절의 통증과 부종으로 발현하지만,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관절의 침범 개수가 늘어나고 관절의 변형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장기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질환이다.

그간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 전통적인 질병 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치료약제들이 개발되어 이용되어 왔지만, 아직도 완치율은 20% 이내에 불과하여 새로운 치료 약제의 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약물질인 토파시티닙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적용하고 그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토파시티닙은 화이자에서 개발한 신약으로서 Janus kinase (JAK) 라고 불리는 세포 내 신호전달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제이다. Janus kinase는 대표적인 신호전달 물질로서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작동하여 관절 내 염증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게 되는 세포 내 물질이다. 기존의 생물학적 제제는 단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반면, 신호전달 차단은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공통 작용 기전을 차단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염증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존의 생물학적 제제들이 주사약제인데 반해서 경구약제여서 투여가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유용성으로 인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메토티렉세이트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이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표준 치료제인 메토티렉세이트에 노출되지 않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9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세계 30개국의 160개 기관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186명의 환자는 메토티렉세이트를 주당 20mg씩 투여 받았고, 373명의 환자는 토파시티닙을 매일 5mg씩 2회 투여 받았으며, 397명의 환자는 토파시티닙을 매일 10mg씩 총 2년간 투여 받았다. 본 연구의 일차결과변수는 1) 투여 6개월 시점에서 van der Heijde modified total Sharp score 로 표시되는 방사선학적 진행 지수의 변화와 2) 압통관절 수 및 부종관절수가 70% 이상 개선되고 기타 임상적 지표가 개선되어야 하는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70 (ACR 70) 지표의 도달율이었다.

연구 결과, 연구 약제 복용 6개월 뒤, 관절 방사선 검사에서 van der Heijde modified total Sharp 점수의 증가가 메토티렉세이트를 복용한 환자에서는 0.8 점인 반면에, 토파시티닙을 5mg 또는 10mg씩 하루 2차례 복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각각 0.2점, < 0.1점으로 관절파괴가 유의하게 예방됨을 보였다($P < 0.001$). 관절염 상태의 임상적 개선 정도에 있어서도 메토티렉세이트를 복용한 군에서는 12.0%만이 6개월째에 ACR 70에 도달한 반면에, 토파시티닙 5mg 또는 10mg 을 하루 2차례 복용한 군에서는 각각 25.5% 및 37.7% 에서 도달되어서 토파시티닙이 메토티렉세이트보다 유의하게 더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001$). 부작용 측면에 있어서는 대상포진이 메토티렉세이트를 복용한 186명의 환자 중 2명(1.1%)에서 발생한 반면에, 토파시티닙을 복용한 770명의 환자 중에서는 31명(4.0%)에서 발생하였다. 암종의 발생은 메토티렉세이트 군에서 1명이 발생한 데 비해서, 토파시티닙 군에서는 총 5명이 발생해서 유사한 발생비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토파시티닙 사용군에서는 일부 환자에서 혈청 크레아티닌의 상승과, 지질단백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서 토파시티닙의 적용 대상을 메토티렉세이트에 노출되지 않은 초기 환자군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재 표준 치료로 간주되고 있는 메토티렉세이트와의 직접 비교 연구를 통해, 토파시티닙이 임상적, 방사선학적 측면 모두에서 우월함을 최초로 증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토파시티닙의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그간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

메토트렉세이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온 전통적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연구성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 질병 조절제와 생

물학적 제제에 신호전달 차단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시킴으로써 메토트렉세이트에 한정되어 있던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옵션을 한 차원 넓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Victor J Dzau 미국의학한림원 회장 내한



2015년 11월 18일 남궁성은 회장은 조선포털에서 개최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내한한 현 미국의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 NAM) 회장인 Victor J. Dzau(사진) 교수를 만나 환담하였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현재 상황과 발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미국의학한림원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발전을 위하여 미국의학한림원의 경험을 나누며 적극적인 상호간의 교류로 협조하겠음을 약속하였다.

제2차 분회총회 개최 보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제12차 분회총회를 가톨릭 의대 성의회관 8층 START 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 2015. 11. 25(수) 오후 4시에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서는 각 분회별로 정회원들이 참석하여 2016년도 신입 정회원 선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차기 평의원 및 분회장을 선출하고, 각 분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분회총회에서 논의된 2016년도 신입정회원 선출(안)은 회원인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거친 후 1월 28일(목)에 개최되는 평의회에서 3차 심사를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회원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12차 분회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차기 평의원 및 분회장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제1분회 : 안영수(분회장), 조양혁, 김영명(평의원)
- 제2분회 : 채종일(분회장), 박정규, 박용구(평의원)
- 제3분회 : 박병주(분회장), 이송덕(평의원)
- 제4분회 : 박영배(분회장), 이해리, 강종명, 김호연, 서정기, 조수철, 윤재일(평의원)
- 제5분회 : 이윤호(분회장), 장성구, 남주현, 김영백, 김선희, 최인호, 김용진(평의원)
- 제6분회 : 장성호(분회장), 김기환, 하성환(평의원)
- 제7분회 : 김여갑(분회장), 김금순(평의원)

선출된 평의원 및 분회장의 임기는 2016.2부터 2019.1월까지이다.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제13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회원 선출,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승인(안) 및 정관 개정의 건과 신임 임원(회장, 부회장 및 감사)선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시 :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소재)

회원 동정



김여갑 (임기정회원)

김여갑 회원은 2015년 10월 24일 개최된 50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치의학 학술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서유현 (임기정회원)

서유현 (정회원 서울의대 명예교수 겸 한국뇌연구원 초대원장) 회원은 지난 10월 1일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겸 뇌과학연구원 원장에 취임 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OECD 과학정상회의 세계과학기술포럼(CWSTF) 의학 및 생명과학분야 기초강연과 대중을 위한 특강을 하였다. 지난 10월 28일 경남유아교육원 주최로 '뇌적기 교육'에 관하여 특강을, 10월 18일 티브이조선에서 개최한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100세인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11월 21일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에서 '뇌 발달과 유아인성교육'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또한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줄기세포 치료제 활성화 간담회에서 '줄기세포치료제활성화 정책과제'에 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유희석 (임기정회원)

유희석(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산부인과)회원이 최근 제 4차 아시아부인암학회 학술대회 (The 4th Biennial Meeting of 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에서 차기 회장(President-Elect)으로 선출되었다.

아시아부인암학회는 아시아 여성의 부인암 연구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각국 부인암 전문가가 모여 2009년 설립했으며, 2년마다 학술대회를 열어 학술 교류와 교육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유희석 교수는 아시아부인암학회 창설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직위원장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이다.



이창우 (임기정회원)

이창우 정회원(제4분회,피부과학)은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지부 부설 피부과에 근무하다가, 이번 2015년 10월 부터 서울적십자병원 피부과장으로 이전 근무하게 되었다.



임정기 (임기정회원)

임정기(서울의대, 영상의학) 회원은 2015년 11월 29일부터 12월 4까지 미국 Chicago에서 개최되는 북미방사선의학회 (RSNA)에서 명예회원 (Honorary Member Award)으로 추대되어 수상한다. RSNA에서는 매년 3명 내외의 영상의학자를 명예회원으로 선정하고 개회식에서 시상한다.



장성구 (임기정회원)

장성구(경희의대,비뇨기과)회원은 문학시대를 통하여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첫번째 시집인 “여강(驪江)의 꿈”을 지난 2015년 11월 15일 출판하였으며, 한국보건건의료 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민을 위한 임상연구 사업에서 지난 10월부터 “임상연구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AUA(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Daily Scope이라는 미국비뇨기과학회의 공식 뉴스지에 경희대학교 비뇨기과학 교실의 전립선암에 대한 임상연구의 내용이 소개 되었는데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1월 대한비뇨기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인데 AUA에서 자발적으로 소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 장성구 회원은 “국민을 위한 의료협의체”에서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여 의료 일원화에 대하여 한의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의료계 대표는의협 회장의 추천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에서 1명, 대한의학회에서 1명이 참여하고 있고 한의계 대표 역시 한의협 회장의 추천을 받은 대한한의학에서 1명, 대한한의학회에서 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국장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채종일 (임기정회원)

채종일 회원(서울의대,기생충학교실)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건강관리협회 201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인사말을 통해 “기생충박멸협회 때부터 건협과의 인연이 40년이 되는 것 같다”며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선·후배분들과 합심해서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종일 회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감염병연구소 소장, 대한기생충학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로 역임한 바 있으며, 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후원 안내 및 후원 현황

후원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재정자립을 통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제안과 의학한림원의 각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개인 회원을 비롯한 단체, 기업 등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기금은 의학 발전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과 학술 포럼에 사용될 뿐 아니라 의학한림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기와 같이 기부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참여가 의학한림원은 물론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현황 :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후원하여 주신 회원님들과 단체

단 체 : 연세의료원

명예회원

박 준 영(명예회원)

신 창 재(명예회원)

서 교 일(명예회원)

함 기 선(명예회원)

윤 대 원(명예회원)

종신정회원

김 두 희(종신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이 영 우(종신정회원, 제5분회-신경외과학)

김 병 길(종신정회원, 제4분회-소아청소년과학)

정 성 창(종신정회원, 제7분회-치의학)

김 현 주(종신정회원, 제4분회-소아청소년과학)

조 승 열(종신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남궁성은(종신정회원, 제5분회-산부인과학)

지 제 근(종신정회원, 제2분회-병리학)

강 성 귀(종신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임기정회원

강 성 귀(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김 희 중(임기정회원, 제5분회-정형외과학)

고 영 관(임기정회원, 제6분회-응급의학)

박 병 주(임기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고 현 윤(임기정회원, 제4분회-재활의학)

박 귀 원(임기정회원, 제5분회-외과학)

김 광 원(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박 정 한(임기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김 나 영(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서 창 옥(임기정회원, 제6분회-방사선종양학)

김 병 국(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선 경(임기정회원, 제5분회-흉부외과학)

김 영 백(임기정회원, 제5분회-신경외과학)

송 지 영(임기정회원, 제4분회-정신과학)

김 우 현(임기정회원, 제1분회-생화학분자생물학)

안 세 현(임기정회원, 제5분회-외과학)

김 진(임기정회원, 제2분회-해부학)

유 승 흘(임기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김 충 현(임기정회원, 제5분회-신경외과학)

이 승 규(임기정회원, 제5분회-외과학)

김 현 철(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이 재 승(임기정회원, 제4분회-소아청소년과학)

이 정 용(임기정회원, 제2분회-병리학)
 임 정 기(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임 효 근(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임 태 환(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장 성 호(임기정회원, 제6분회-마취통증의학)
 정 연 태(임기정회원, 제2분회-해부학)

지 훈 상(임기정회원, 제6분회-응급의학)
 채 종 일(임기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천 명 훈(임기정회원, 제2분회-해부학)
 최 병 인(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홍 성 태(임기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현재까지의 누적 약정금액 : 164,520,000원

소중한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후원 신청]

1. 기부 신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0502-795-4030) 또는 이메일(namok@kams.or.kr)로 보내 주시고, [기부금 납부 방법]에 따라 “직접 계좌이체 신청용” 또는 “CMS 출금이체 신청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기부약정서는 의학한림원 홈페이지(<http://www.namok.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계좌번호 국민은행 : 387201-01-125011 기업은행 : 615-000067-01-057
 신한은행 : 140-010-113029 우리은행 : 1005-302-303549
 예 금 주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후원 문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전화 : 02-795-4030 / 팩스 : 0502-795-4030 / 전자우편 : namok@kams.or.kr

투고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 매체로서 의학 진흥과 학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대변지입니다. 보다 활성화 되고 폭넓은 여론의 광장으로서는 명실상부한 뉴스레터 편집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발 행 일 : 연 4회(3월/6월/9월/12월) 발간
- 접 수 처 :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편집실
 전화 : 02-795-4030 팩스 : 0502-795-4030 e-mail : namok@kams.or.kr
- 투고내용 : 제언, 회원 근황, 행사안내, 기타 홍보사항
- 원고접수 : 수시접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제19호

| 발 행 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Tel. (02)795-4030 Fax (0502)795-4030
 | 발 행 인 | 남궁성은 | 편 집 인 | 이정용 | 인 쇄 | 아람에디트 Tel. (02)2273-2497